

광주·전남 학교 친일청산 본격화

광주, 설명회·TF구성·용역·철거 11월까지 매듭
전남, 전문가그룹 TF 1차 전수조사 친일 잔재 115건 확인

광주·전남지역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는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11월까지는 청산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고, 전남은 전문가그룹의 1차 전수조사를 마쳤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차 추경을 통해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사업비 8200만원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친일 잔재조사 및 청산TF팀'을 구성하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과와 교육, 교기, 교복 등 학교상징물은 물론 기념비나 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요청한 상태고, 8월까지 구체적인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과정에서 설명회와 학교별 TF구성, 전문가그룹 판별작업, 예산교부, 철거 작업 등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학교역사관'에 친일잔재 관련 자료를 게시도록 하고, 특정 인물이나 상징물 부각 지원에서 벗어나 친일 관련 자료수집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 상징물의 경우 교육공동체간 협의로 변경하고, 친일 잔재 기념비와 건축물, 동상 등은 존치시킨 뒤 '다크투어리즘'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시교육청의 친일 잔재 청산은 2016년 친일인사 김백일(일본식 이름 가네자와 도시마니마·1917~1951)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백일초의 교명을 성진초로 개명하는 등 주로 파편적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수조사나 다름없는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청산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일 흔적 지우기'는 광주시의뢰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온 친일 잔재 조사용역 결과와 역사교류 활성화 조례 등을 근거로 이뤄질 예정이다.

첫 성과물도 나왔다. 학교법인 만대학원(이사장 신흥수) 산하 광덕중·고는 지역 교육계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위한 첫 사업으로, 친일 교과 교체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전남지역 학내 친일 잔재 청산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과와 석물(표지석과 흉상 등), 생활규정 등 친일 잔재 115건이 공식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역사 전공 대학교수

와 역사·음악 교원,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그룹으로 TF팀을 구성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5개 학교에서 친일 잔재가 확인됐다.

친일음악자가 작곡한 교수가 18개교에 달했고, 33개 학교에서는 일제 양식의 석물이, 64개 학교에서는 일제식 생활규정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학교 교과의 경우 계정식(1교), 김동진(3교), 김성태(11교), 현

와 역사·음악 교원,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그룹으로 TF팀을 구성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5개 학교에서 친일 잔재가 확인됐다.

친일음악자가 작곡한 교수가 18개교에 달했고, 33개 학교에서는 일제 양식의 석물이, 64개 학교에서는 일제식 생활규정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확인된 잔재 외에도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본격적인 청산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3·1 운동과 일시정부수립 100주년과 연계해 독립운동과 식민 진지 청산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유도하고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비로소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학내 친일 잔재 청산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사교육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뜻 깊은 올해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오감만족 밀 보리 이야기 20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오감만족 밀 보리 이야기 특별 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밀과 보리를 만져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불법주차 카파라치 한 달에 5만6688건 신고

지난달 17일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1개 월간 총 5만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접수된 건은 총 5만6688건이다. 일 평균 1889건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차량 사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올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경기(1만5496건)

로, 서울(6271건)과 인천(51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4대 금지구역 중 가장 위반 수가 많은 불법 주·정차 구역은 횡단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총 2만 9680건(52.3%)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했다가 신고를 당했고 교차로 모퉁이는 1만2352건(21.8%), 버스정류소 9011건(15.9%), 소화전 5645건(10%) 순이었다.

시행 첫째 주(4월 17~23일) 조치율은 47.9%였으며 넷째 주(5월 8~16일)에는 74.3%로 높아졌다.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게 된 건수는 56.4%로, 과태료 대상 여부가 모호한 사례 17.9%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경고하는 계고장만 발부했다.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는 5월 2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도 시행에 관한 시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우리 미혁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IN
건강한 행복,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증자체증기발전
제작자로 충원 민혁군

中 남부 광시서 지붕 무너져 최소 2명 사망

중국 남부 광시(廣西) 자자구 바이서(百色)시에서 20일 밤에 영업하는 술집의 지붕이 갑작스레 무너지면서 적어도 85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바이서시 유장(右江)구 시내에 있는 0776° 술집 지붕이 이날 새벽 1시께 붕괴하면서 모두 85명이 잔해에 갇혔다.

구조대와 주민들이 현장에 달려가 매몰자 구조에 나서 85명 전부를 끌어냈지만 이미 2명이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1명은 위중한 상황이며 다른 7명도 중상이라고 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대원, 보건 관계자 등 160명이 오전 8시까지 수색과 구출작업을 대체로 완료했다. 국가위생위원회는 6명의 의료전문가를 파견해 부상자 치료도 도왔다.

광시 자자구 정부는 저우광화(周光華) 비서장과 리완춘(李万春) 응급청장, 웨이밍진(蔚明職) 소방총대 부총대장을 보내 현장 수습을 지휘하도록 했다.

사고 술집은 건평이 700m²이며 3층짜리 철구조 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했다.

앞서 중국 상하이에선 16일 개축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20명 이상이 파묻혔으며 이중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상하이 중심가 창닝(長寧)구 자오화(肇化)로 주택가에 있는 사고 건물은 이전에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수리공장 등으로 쓰였는데 판매대리점이 나간 후 개장공사를 벌이다가 참사로 빚었다.

볼리비아 축구심판 경기 중 심장마비사

남미 볼리비아의 고도 3900m의 고지대 엘알토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던 31살의 심판이 경기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빅토르 우고 후티도리는 이름의 이 심판은 '올웨이스 레디'와 '오리엔테 페트로로로' 팀간 경기에서 심판을 보던 중 전반전이 다 끝나가던 47분께 갑자기 뒤통 쏘려졌다.

후티도리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올웨이스 레디' 팀닥터의 판단에 따라 앰뷸런스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송된 직후 2번째 심장마비가 일어나 결국 사망했다.

브라질 북부 파라주서 총격사건 11명 피살

브라질 북부의 파라 주에서 대규모의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브라질 사법 당국이 구체적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브라질 매체들은 이 사건이 여러 명의 무장 남성들이 벨트 시티의 한 술집에 쳐들어와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브라질 G1 뉴스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날 7명의 무장 남성들이 비에 들어와 무자비 사격을 가했으며 현지 경찰도 1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주 정부의 니탈리아 메요 대변인은 주 정부는 파리주 내에서 대량 살륙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외에는 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집트 대박물관 인근서 폭탄 폭발

이집트의 대표적 관광지인 기자지역 피라미드 부근에서 19일(현지시간) 도로마을 폭탄 폭발이 발생해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포함 최소 17명이 부상했다고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집트 관리들을 인용, 관광버스는 기자지역에서 새로 건설 중인 이집트 대박물관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집트 관리들은 관광버스에는 최소 25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들은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폭탄 폭발로 17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대부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광객들과 이집트인들로 사망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군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대치하는 분쟁 지역으로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이슬람 무장세력이 활동하는 시나이 반도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전개했다. 이슬람 무장세력은 이집트 본토에 진입해 소수 집단인 기독교인들과 관광객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우리 미혁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증자체증기발전
제작자로 충원 민혁군

영유아건강검진 증자체증기발전
제작자로 충원 민혁군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